

TV 5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채널A	KBS1	KBS2	MBC	KBC/SBS
00 굿모닝! 채널A입니다	00 KBS 뉴스광장	00 굿모닝 대한민국 1~2부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출발 모닝와이드 1~2부
07	50 인간극장		10 광주MBC 뉴스투데이 50 MBC 아침드라마 <위험한 여자>	05 KBC 뉴스지금 30 출발 모닝와이드 3부
08	00 생방송 김성주의 모닝카페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생방송 오늘 아침
09	00 그 여자 그날 그 스페셜	30 KBS 뉴스	00 TV 소설 <복희누나> 40 TV 50년 기획 여유만만	30 MBC 뉴스 45 기본 좋은날
10	50 개국특집 K-POPCON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55 TV동화 행복한 세상	50 지구촌 뉴스	10 좋은 아침
11	00 여성공감 55 바른말고운말	10 스포츠 타임 20 세상의 모든 디큐 멕시코 수정동굴의 비밀	00 MBC 여성토크쇼 위드	00 SBS 생활경제 40 KBC 생활뉴스
12	10 뉴스와 경제 30 보이는 특강	00 KBS 뉴스 12	10 월화드라마 <브레인>	00 SBS 12뉴스 30 결산 2011 열린대토론회
1	30 디큐스페셜 개국특집 아시아디큐영화 <오래된 인력거>	00 KBS 걸작선 <사랑을 믿어요>(재)	00 MBC 뉴스 15 나눔의 날 특집 장애인 희망프로젝트 <함께하는 세상>	30 엄마랑 이빠랑 지구 한바퀴
2	30 개국특선영화 <일루서니스트>	00 KBS 뉴스 10 제16회 삼성화재 월드컵마스터스 결승 1국	30 체험! 삶의 현장	00 SBS 뉴스 10 네트워킹 현장 고향이 보인다
3		00 KBS 뉴스타임 05 유로링 동물탐정 35 미키마우스 클럽하우스	55 MBC 네트워킹 특선 <특별한 답사, 동행>	10 우리아이기가 달라졌어요
4	10 개국특집 생방송 연예 인사이드	00 KBS 오늘의 경제 10 KBS 글로벌진단 위기의 시대 제 1편 <꿈꾸리는 10억>	00 TV 유치원 30 부루와 숲속 친구들	00 안녕 지두아 30 내마음의 크레파스 스페셜
5	50 뉴스네트워크	00 KBS 뉴스 5 20 동물의 세계 40 남도지오그래피	00 사랑의 가족	00 SBS 뉴스퍼레이드 15 KBC 저녁뉴스 30 세네포트(재)
6	00 다섯쌍자의 맛있는 파티	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00 KBS 6 뉴스타임 10 생생정보통	30 생방송! KBC 투데이
7	00 생방송 연예인사이드	00 KBS 뉴스7 30 우리들의 거꾸리	45 스타 인생극장 <지우림>	10 시사저널 때때때때 20 일일드라마 <내일 꽃님이>
8	00 너는 내 운명 30 뉴스 830	25 일일연속극 <딩신뿐이야>	20 세계는 지금 55 위기탈출 넘버원	15 일일연속극 <오늘만 같아라> 55 MBC 뉴스데스크
9	15 스포츠 투나잇 20 월화미니시리즈 <컬러 오브 유스>	00 KBS 뉴스9	55 월화 드라마 <브레인>	55 월화 드라마 <천일의 약속>
10	30 율리우스의 반란 앙코르	00 가요무대		
11	40 해피엔드 <101가지 부부이야기>	00 KBS 뉴스라인 40 집중인터뷰 이, 사, 람.	05 대국민 토크쇼 <안녕하세요>	15 특집 대담 아시아에서 길을 찾다 창의적 문화도시
12	10 한밤뉴스 20 천상의 화원 공배령	25 KBS 뉴스 35 비바K리그	15 스포츠 하이라이트 35 TV50년 앙코르 유머 1번지	25 MBC 뉴스 24 35 스포츠 특선
			25 MBC 뉴스 24 35 스포츠 특선	25 나이트리인 45 영광의 도전 내일은 챔피언

# “나의 노후대비는 연기연습이에요”

‘오싹한 연애’ 귀신 보는 20대 여리 역 손예진

“나이 드는 거 생각하면 연기 못 하죠. 제가 언제까지나 여주인공만 할 수는 없잖아요.” 배우 손예진(30)은 로맨틱코미디 ‘오싹한 연애’의 개봉을 맞아 최근 삼정동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노후 대비는 “연기를 연습하는 거”라면서 “늙어서도 하고 싶은 일을 하려면 자기관리가 필요하다”고 했다.

“우리 사회는 여배우의 주름살에 관대하지 않잖아요. 남자 배우들의 주름살은 깊이가 있다고 하면서도 여배우의 주름살은 보기 흉하다고 하죠.” 그는 젊음의 빛은 사라질 수밖에 없다며 나이 들어서도 연기를 잘할 수 있도록 자신을 잘 다듬길 해야 한다고 했다. “음식조절도 해야 하고, 운동도 해야 하죠.”(웃음)

사실 손예진은 영화나 텔레비전에서는 점점 나이를 거꾸로 먹고 있다. 20대 중반에는 영화 ‘외출’(2005)과 드라마 ‘연애 시대’(2006)로 30대 여인을 연기했다면 서른 살

이 돼서는 20대 여성을 연기하고 있다. 그는 ‘오싹한 연애’에서 영화는 귀신을 보는 능력을 지닌 20대 여인 역을 맡았다.

“내 머리속의 지우개”를 할 때도 첫 사람의 이미지가 강했어요. 이미지가 한정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청순한 이미지를 벗고 싶었죠. 삶의 깊이 있는 슬픔 등 여러 다양한 감정들을 경험해보고 싶었어요. 그러다 보니 실제 제 나이보다 더 많은 역할을 맡게 됐던 것 같네요.”

손예진은 20대 초반이었던 2002년 ‘연애 소설’ 이후 거의 매년 한 편씩의 영화에 출연하고 있다. 하지만 감독의 ‘외출’(2005) 같은 멜로물과 ‘첫사랑 사수 궤기대회’(2003) 같은 로맨틱코미디가 대부분이었다. 지금까지 함께한 배우 중 호흡이 가장 잘 맞은 배우는 누구였을까.

“함께 연기했던 선배 대부분과 다 잘 맞았던 것 같아요. 특히 ‘아내가 결혼했다’에서 김주혁 선배와 잘 맞았어요. 말이 되지 않는 캐릭터를 맡아 되게 해줬죠. ‘내 머리속의 지



우개’에서 정우성 선배와의 호흡도 좋았던 것 같아요.” /연합뉴스

## 쇼팽의 고향 폴란드

EBS ‘세계테마기행’ 오늘부터 4일간 방영

EBS ‘세계테마기행’은 ‘쇼팽의 고향, 폴란드’편을 5~8일 밤 8시 50분 방송한다.

제작진은 폴란드 고주프 오케스트라 상임 지휘자 류재준과 함께 수도 바르샤바에서 북쪽 항구 도시 그단스크를 거쳐 크라쿠프까지 여행하며 폴란드의 역사와 문화를 소개한다.

1부 ‘예수의 혼을 부른다’에서는 바르샤바에 남은 쇼팽의 흔적과 지난날 비일코폴스키에서 열린 독립 기념 콘서트를 카메라에

담는다.

2부 ‘발트해의 보석, 그단스크’에서는 바덴사 전 대통령의 민주화 투쟁지로 유명한 무역항 그단스크에서 소수민족 카슈비안의 전통문화를 엿본다. 또 2천여 개 호수가 있는 마지리언 지역을 찾아 또 다른 소수 민족 갈란디아 사람들을 만난다.

3부 ‘고도의 향기를 찾아서, 크라쿠프’에서는 11~17세기 폴란드 수도 크라쿠프를 소개한다. 제작진은 중세의 흔적이 남은 바벨성, 성마리아 교회를 둘러본 뒤 유대인 화살의 아름다움 서린 아우슈비츠를 찾아가는다.

4부 ‘시간의 역사, 등불을 밝히다’는 폴란드 가톨릭 축일 만성절과 바르샤바 시내의 시네라 인어상을 통해 외부의 침략으로 고통받은 폴란드의 역사를 들여다본다. /연합뉴스

###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12월 5일(음 11월 11일 庚寅)

子	36년생 남의 것을 탐하면 화를 자초하느니라. 48년생 옛 감정을 잊고 화해하면 좋겠다. 60년생 노력의 여하에 따라 얼마든지 변화할 수 있다. 72년생 애인이 생길지도 모른다. 84년생 오늘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삶에 대한 향방이 좌우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28, 40	午	42년생 벼세가 나타날 수도 있다. 54년생 적극성을 과시하는 이의 충고를 간과하지 마라. 66년생 유감 있었던 이가 나타나면 서로 진심을 토로하고 상처를 치유하라. 78년생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해결할 일이다. 행운의 숫자 : 29, 57
丑	37년생 과욕만 하지 않는다면 대고는 없다. 49년생 속단하면 손해를 자초하느니라. 61년생 잘못된 옛 일이 괴롭히는 하루가 된다. 73년생 지출의 규모를 줄이지 않는다면 큰 타격이 오겠다. 85년생 절대적으로 분수를 지켜야 화를 최소화할 수 있다. 행운의 숫자 : 46, 06	未	43년생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하루가 진행된다. 55년생 열정이 분산되면 실속이 없느니라. 67년생 주변에서 협력자가 나타나지만 큰 도움은 안 된다. 79년생 최선을 다해도 가망성이 없으니 빨리 선회하라. 행운의 숫자 : 92, 30
寅	38년생 반응과 실제의 결과가 확연히 다를 수 있다. 50년생 좋은 관계를 이룰 수 있으니 시도해보라. 62년생 생활에 변화를 준다면 발전을 기약할 수 있으리라. 74년생 비밀 유지를 위해서 말을 아껴야겠다. 행운의 숫자 : 67, 77	申	44년생 만나고 싶은 사람이 보이지 않고 영동한 사람만 눈에 띈다. 56년생 이루어진 것이나 다름 바가 없느니라. 68년생 속단은 글들이니 차분하게 살펴봐라. 80년생 아래의 힘이 넘쳐서 위로 올라온다. 행운의 숫자 : 52, 87
卯	39년생 겉모습이 부쩍할수록 선택할 필요 없다. 51년생 해결될 실마리가 노출되기 시작한다. 63년생 비밀리에 진행할 필요 없이 열린 생활 자세로 처리해도 된다. 75년생 진한 사이에 같이 사귀어주는 밀라. 행운의 숫자 : 01, 47	酉	45년생 시간은 지루하나 뜻하는 일은 이루어진다. 57년생 시작하자마자 손실이 날 수도 있으니 관리를 철저히 하자. 69년생 욕심을 버리고 자중하라. 81년생 실수로 과거의 공짜가 흔들릴 수도 있으니 조심하라. 행운의 숫자 : 07, 05
辰	40년생 행복과 불행은 마음먹기에 달려 있느니라. 52년생 역외를 하려는 이에게 중요한 일을 실수로 맡길 수 있다. 64년생 연인으로부터 속에서도 더럽혀지지 않느니라. 76년생 과도한 욕심이 없는 한 평안하다. 행운의 숫자 : 82, 19	戌	46년생 원하던 방향으로 진행되리라. 58년생 반복 속에 노력의 결과가 산출된다. 70년생 얼굴에 비친 숨은 그들을 간파할 수 있어야 한다. 82년생 억울한 사람이 희생당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겠다. 행운의 숫자 : 62, 97
巳	41년생 도량이 넓게 처신해야 만사가 순조롭게 진행된다. 53년생 깜짝 놀랄 정도로 좋은 일이 생길 것이다. 65년생 미처 신경 쓰지 못하고 있는 곳이 있느니라. 77년생 잔잔하게 미소 지어주는 하루다. 행운의 숫자 : 39, 72	亥	47년생 허심탄화한 심경의 토로가 절실하다. 59년생 운신의 폭이 좁은 상황을 알고 진심으로 겸손 하라. 71년생 장고 끝에 내린 결론은 절망적이거나. 83년생 인연이 닿으면 쉽게 성사될 수도 있으리라. 행운의 숫자 : 12, 72

www.cafe.daum.net/sajo114 ☎010-9790-8237

**제20회 光日盃**  
광주·전남 직경비록대회

준결승 2국 1보 (1~20)

조영배 5단 (주택관리사회)      이정장호 5단 (포스코)

와신상담의 복수전

앞선 준결승전의 다른 한쪽에서는 이미 (주)송림의 김광식 5단이 선착해 있는 가운데 이 바둑은 다른 한자리를 놓고 주택관리사회의 조영배 5단과 포스코의 이정장호 5단이 격돌을 벌이게 되었다. 두대국자는 앞선 단체전의 4회전에서 한차례 격돌을 벌여 이정장호 5단이 패승을 거두고 포스코의 단체전 우승을 확정짓는 바가 있어 이 판은 조영배 5단으로서와 와신상담의 복수전인 셈이다. 개인전은 단체전의 3개조에서 4연승자들이 자동으로 4강에 진출하고 나머지 한자리는 전체 승점 1위자가 차지하게 되는데 조영배 5단은 1패를 하고도 승점 1위가 되어 4강에 진출하는 행운을 차지하게 되었다. 과연 이 판에서도 행운이 따라붙 복수에 성공할 수 있을 것인지도 관심거리다.

정장호 5단은 포스코의 간판타자로서 이미 단체전은 물론이고 개인전에서도 우승컵을 차지한 바 있는 직장바둑계의 명호다. 이번에도 역시 단체전에서 가법계 4연승을 거두고 개인전 준결승에 안착하여 2관왕을 향해 순항하고 있다.

백 14로는 두텁게 ‘가’로 받아주는 수도 많 이 두어지는데 조영배 5단은 백 20까지 속력 행마를 보여주고 있다.

/오규철 9단 <본보 바둑해설위원>

우리말 나들이	굿모닝 잉글리쉬	니하오 쑹구위	오하오유 니혼고
<p><b>도가니</b></p> <p>도가나라는 소설이나 영화가 나오기 전에는 ‘도가니’ 하면 ‘열광의 도가니에 빠졌다.’라고 표현할 때나 음식점 간판의 ‘도가니탕’에서 주로 보아 왔다.</p> <p>축구 경기를 관람할 때, 응원하는 팀이나 선수가 골을 넣으면 관중의 함성으로 경기장은 ‘열광의 도가니’로 변합니다. 즉 우리가 일반적으로 흥분을 하거나 감격을 해서 들끓는 상태를 말할 때, ‘열광의 도가니’라든가 ‘흥분의 도가니’ 또는 ‘감격의 도가니’와 같은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렇다면 영화 제목이나 소설 제목에 쓰인 ‘도가니’의 뜻은 무엇일까? ‘도가니’라는 것은 단단한 흙이나 흙은 같은 것으로 우묵하게 만든 그릇을 말하는 데, 이것은 쇠붙이를 녹이는 데 쓰게 됩니다. 쇠붙이를 녹이면 대단히 뜨겁게 달궈야 할 텐데, 사람이 흥분을 하거나 열광하게 되면 감정적으로 상당히 뜨거워지는 것을 여기에 비유해서 ‘열광의 도가니’ 또는 ‘흥분의 도가니’라는 말을 쓰는 것입니다. ‘도가니’하면 ‘도가니탕’을 떠올리는 사람도 있을 것인데, 도가니탕은 소 무릎의 종지뼈와 거기에 붙은 고깃덩이를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흥분의 도가니탕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것은 우스갯소리입니다.</p> <p>&lt;전남언어문화교육 연구회&gt;</p>	<p><b>Because there are many litterbugs</b> litterbug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죠</p> <p>A : Why is there so much garbage in the street? B : Because there are many litterbugs. A : What are litterbugs? B : They're people who don't put their rubbish in trash cans.</p> <p>A : 길거리에 웬 쓰레기가 그리도 많아요? B : litterbug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죠. A : litterbug이 무슨 뜻이죠? B : 쓰레기통에 자신들의 쓰레기를 넣지 않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p> <p>* garbage : 쓰레기, 잡동사니 * litterbug : (미국) 길거리·공공장소에 함부로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 * rubbish : 쓰레기, 폐기물 * trash can = 쓰레기 통</p> <p>&lt;동아 외국어학원&gt; www.donga.tv ☎ 222-6253</p>	<p><b>飞毛腿 fēimáotǔ</b> 날아다니는 다리</p> <p>글자 자체로는 ‘날아다니는(飞) 털(毛) 다리(腿)’로 해석되며 ‘매우 빨리 달리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고대에 긴급 우편물을 전달하는 사람은 목적지까지 가는 동안 역에서 말을 갈아타고 달렸는데, 편지가 깃털이 붙어 있으면 아주 긴급한 편지로 취급되어 전달자에게 최상급의 말이 주어졌다고 합니다. 그것에서 유래하여 날아가는 털 다리가 빨리 달리는 사람의 의미로 쓰입니다.</p> <p>飞毛腿에서 확대된 용어로는 飞毛腿导弹(스커드 미사일)이 있고, 중국에 건전지 브랜드 중에 ‘中國名牌’의 칭호를 얻은 飞毛腿電池가 있네요. 미사일이나 건전지나 ‘빠르고 강함’ 이미지를 쓰는 것이 공통된 생각이구나 봅니다.</p> <p>&lt;리틀차이나 중국어 전문학원&gt; www.littlechina.co.kr ☎ 233-9582</p>	<p><b>日本語の勉強はうまく行っていますか.</b> 일본어 공부는 잘되고 있습니까</p> <p>A : 南さん、日本語の勉強はうまく行っていますか。 B : そうですね。この頃壁にぶつかって進みません。 A : 毎日絶え間なく頑張らなければなりませんね。 B : はい、日本語が上手になるように、頑張りたいです。助けてください。</p> <p>A : 미나미씨 일본어 공부는 잘되고 있습니까. B : 글썽요, 요즘 벽에 부딪쳐서 진척되지 않아요. A : 매일 끊임없이 분발하지 않으면 안 돼요. B : 예, 일본어가 능숙해지도록 분발하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p> <p>[문법정리] ◎ ~ように「~하도록」 ⇒ 어떤 목적,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의지적 행위를 나타내는 표현.</p> <p>&lt;아스카 일본어 전문학원&gt; http://www.kjasuka.co.kr ☎ 232-1503</p>